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71호 1판 (음력 12월 6일)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광주시장 출마 후보 시민운동·민주화 인사들 '대세'

'민주·인권·평화' 정체성 부합·일도 잘하는 '인물론' 부각

"지역경제 살릴 경제 분야 전문성 갖춘 인물 필요" 여론도

'촛불 민심'이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과 진보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6월 치러질 광주시장 선거에 80년대 시민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특히 과거 80년대 암울했던 군부 독재시절 민초(民草)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이 연이어 흥행하면서 기성세대는 물론 20~30대 젊은층까지 민주화에 대한 역사 의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선거는 '시민사회·민주화 정신'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화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의 선거는 그동안 광주가 추구해왔던 '민주·인권·평화'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체성에 부합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물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혁과 진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차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 중 암울했던 군부 독재시절 시민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온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윤장현 시장은 1980년 5·18 진상규명과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단체, 종교계, 환경단체의 대표 등을 맡아오며 활동하는 등 광주시민운동 대부(大父)로 꼽힌다.

국회의원 3선을 지낸 강기정 전 의원은 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을 이끈 '386세대'의 대표주자다. 강 전 의원은 반독재 투쟁으로 대학 재학시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영호 남구청장 역시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면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서 온 경력을 갖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민형배 구청장은 2000년부터 참여자치 21 대표와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민사회·민주화 정신'은 이미 광주시민들의 기본정서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해야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용섭 일자리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제통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 양 최고위원은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민주화운동'그룹으로 분류되는 윤 시장과 강 전 의원, 민 구청장, 최 구청장의 경우 국회의원과 단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제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4차 산업에 대비한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등에 기반을 다졌고, 전국 최초로 '광주형일자리'로 일자리 창출을 개척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거치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행정 경험을 쌓았다. 민 구청장도 따뜻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방분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경룡 광주여대(정치학 박사) 교수는 "후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되고, 광주의 미래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해 온 사람이 어떤 후보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오전 서울역에 도착해 강릉행 KTX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송월, 강릉 공연장 둘러봐 … 오늘은 서울 공연장 점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공연에 앞서 사전점검차 21일 방남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일행은 강릉부터 찾아 공연장 시설을 점검했다. 〈관련기사 2면〉

현 단장 일행은 이날 낮 강릉에 도착해 한 호텔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30분께 명륜고등학교 내 황영조기념체육관부터 찾았다.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의 모교에 지어진 황영조기념체육관은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북측 점검단은 예술단이 준비 중인 공연에 적합한 공연장인지를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이어 오후 3시46분께 1000명 수용 규모로 지난달 준공된 강릉아트센터를 찾았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1시간 이상 머무르며 무대 시설과 객석 규모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들은 이날 강릉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22일 오전 서울로 돌아가 정부가 대관일정 등을 감안해 미리 추려둔 공연장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뉴스초점… 민간공원 1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쟁점은?

고도제한구역에 고층아파트 토지 소유주 협의 없어 반발

선정 기준 개선·보완 시급

광주시가 어렵사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4개 공원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지만 3곳에서 이의신청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계량평가에 대한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전문가, 시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탈락하는 등 선정 기준의 개선 및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 조성'이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층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도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비행안전구역에 고층아파트" 논란=시는 2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 공원 4곳 가운데 각각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마륵공원(면적 21만6150㎡)과 수랑공원(29만6211㎡)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12일과 19일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마륵공원과 수랑공원이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과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29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계획했다는 것이 차순위업체들의 주장이다. 불가능한 고층아파트로 계획해 공원 면적을 늘리고, 공원 조성에 투자하는 비용도 더 많이 책정하면서 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협의를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면 우선협상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중에도 위치, 사업규모 등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차순위 업체는 잘못된 제안서이며, 즉각적으로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는 4개의 우산협상자 제안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1억6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결과는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협상기준(안)은 20층 이하 고도 제한, 비공원 개발 면적 대폭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토지소유주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어=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송암공원(52만4927㎡)은 고운건설(주)이 우선협상자가 됐으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면적 중 10% 정도인 5만1639㎡는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논의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호심학원 측은 "송암공원 내 교지가 강제 수용될 경우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심학원 측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시민심사위원들도 우선협상자를 포함한 제안서 제출 업체 대부분이 인근 주민, 토지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흥 세 모녀 서울 화재 참변 ▶6면
동네책방-英 워드 온 더 워터 ▶18면
정현, 오늘 조코비치와 대결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